

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

〈여성가족정책실〉

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확산되는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

1 추진 개요

□ 관련현황

- 서울시 불법촬영 범주는 보험세이나, 일명 ‘몰카’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 확산
 - 적발 : 2,630건(14년) → 3,638건(15년) → 1,976건(16년) → 2,619건(17년)
 - ※ 정부 불법촬영 범죄예방 메시지 발표(18.6.15) 및 특별교부세 4억 교부
- 여성안심보안관 운영(16.8월~18.6월)
 - 인 원 : 50명(자치구별 2명)
 - 고용형태 : 사회적일자리사업, 월 950천원(1일 6시간, 주 3일)
 - 운영실적 : 불법촬영점검 106,302개소, 예방캠페인 : 2,989회

계	화장실	탈의실	샤워장	수영장	기타
106,302	99,164	4,077	2,610	42	409

- 건물주·사업주 자체점검 지원(18년 신규)
 - 민간 업주 요청시 점검장비 임대, 숙박예약서비스 ‘앱’ 운영업체와 협업 추진
 - 점검실적 : 77건 3,239개소 ※ 자체점검 23개소, 장비임대 14건 29식

□ 장애요인

- 현재 안심보안관만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워 공공화장실 점검주기 장기화
- 공공화장실에 비해 위험도 높은 민간건물 화장실의 점검에 한계

□ 추진방향

- 공공부문 철저한 점검체계 구축으로 “**공중화장실=불법촬영 안심구역**” 구현
 - 공공기관 상시 점검체계 구축, 안심보안관 특별관리대상 집중점검
- 점검 장비 임대 확대와 점검 확인증 제공으로 **민간부문 자체점검 활성화**
- **캠페인 개최 및 홍보 강화, 흠집제거 활동** 등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

작성자 여성정책담당관 : 윤희천 ☎2133-5005 여성정책기획팀장 : 고광현 ☎5007 담당 : 김성룡 ☎5019

□ 시·자치구·투출기관 가용자원을 총동원, 상시 점검체계 구축

※ 공중화장실(공공·민간개방) 현황 : 4,923개소
(공공기관 1,941(건물수), 공원·가로 981, 지하철 336, 주유소 633, 민간개방 1,032)

- 공공시설 화장실 :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, 1일 1회 이상 책임점검 시행
 - 화장실 청소 또는 비품교체 시 담당 미화원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
 - 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(‘붙임’)에 ‘불법촬영장비’ 점검항목 추가

시 설 별	관리기관(부서)
근린공원, 어린이공원내 화장실	푸른도시국
시 본청·사업소, 자치구청 및 관할 시설내 화장실	행정국·각 사업소, 각 자치구
한강수영장, 한강공원내 화장실 체육시설(위탁시설 포함)내 화장실	한강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
지하도 상가내 화장실	시설관리공단
투자·출연기관 운영시설내 화장실	각 투자출연기관
지하철역사내 화장실	서울교통공사, 서울메트로9호선(주)

- 민간개방 화장실 : 지역 인적자원 활용,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
 - 자치구별로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활용하여 점검단 구성
 - ※ 인력확보 : 기존 자치구 사회적일자리 인원 재조정, 자원봉사자 모집(자원봉사센터)
 - 민간개방 지정 화장실(주유소 포함), 공공시설 외부의 공중화장실 집중 점검

상시점검체계 운영방안

- ▶ 점검방법 : 적외선(렌즈형) 탐지기 이용, 필요시 정밀점검 요청
 - 육안점검과 적외선 탐지기 점검을 병행하되, 주1회 이상은 반드시 점검기기 활용
 - 이상 발견 즉시 신고(→여성정책담당관) ⇒ 여성안심보안관 정밀점검(전자파 탐지) 시행
- ▶ 점검활동 지원 및 관리(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)
 - 점검장비 지원 : 관리부서(기관)·자치구·자원봉사센터에 적외선 탐지기 대여·비치
 - ※ 총 200~300개 확보, 기관별 관리 화장실 전수조사 이후 대여 수량 확정·배부
 - 점검활동 지원 : 점검 매뉴얼 개발·배포, 점검자 정기교육 시행
 - 점검현황 관리 : 기관별 관할 화장실 점검결과 분기별 수합

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강화 및 시민체감도 향상

○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집중점검 : 전자파 탐지기 활용, 주1회 이상 점검

- 공공·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: 약 1천 개소(구별 40개소 내외)

※ 현재 여성안심보안관 자치구별 일일 점검 화장실 개소 수 : 20~30개소

【선정기준(예시)】

- ▶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▶ 관련 민원이 발생했던 화장실 ▶ 시설이 노후화된 화장실
- ▶ 유흥가 주변 화장실 ▶ 여성 밀집지역에 위치한 화장실 등

- 특별관리대상 집중점검, 점검주기를 기존 2달 이상에서 1주 이하로 단축

- 적외선 탐지기 이외에 전자파 탐지기 활용하여 정밀 점검 시행,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점검 완료 후 스티커 부착 및 점검일시 필수 기록

※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분포에 따라 필요 자치구의 경우 인력 확충 검토('19년)

○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에 대한 출동점검

- 의심사항 신고 공중화장실에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즉시 출동하여 점검

- 민간건물/단체 등의 점검 요청 시 출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방법 교육 실시

○ 활동영역 확대 : 점검활동, 인식개선 캠페인 외에 흡집제거, 안내문 부착 등

□ 쉽고 빠른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

○ “안심이” 앱을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신속 신고시스템 구축

- 불법촬영장비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신고(위치 송신)되는 시스템 구축 : ‘안심이’ 앱 기능에 추가

- 관제센터 → 관할 경찰서 → 여성 안심보안관으로 이어지는 신고체계 마련

※ ‘안심이’ 앱 전 자치구 확대 구축 이후 기능 개선 추진('18년 하반기)

○ 신고된 민간화장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

□ 추진일정

○ 공공시설별 화장실 관리기관(부서) 지정 : '18. 7월말

○ 관리기관(부서)별 공공·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및 결과 제출 : '18. 8월말

○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: '18. 8월말

□ 자체점검 참여 민간화장실에 대한 「서울시 점검 확인제도」 시행

- 대상 : 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는 화장실
- 절차 : 신청 → 점검기준 부합여부 검증 → **자체점검 공식 확인**
 - 자체점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
 - 관할 공무원, 전문가, 여성안심보안관 등 공동으로 기준 부합 여부 실사

【현장점검 사항(예시)】

- ▶ 점검장비 구비 여부 ▶ 정기적 점검 실적(최근 3개월) ▶ 점검 방법의 적절성(현장실사)
- ▶ 나사구멍 등 의심사항 관련 시설관리 현황 등

- 인센티브 제공 : **‘점검 확인증 표식 제공 부착, 비용보전 검토(장비구입 시설보장비등)**

【표식문구(예시)】 ※ 점검일자 기록으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

이 화장실은 불법촬영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- 서울특별시 -

점검일시	점검방법	점검결과

□ 민간의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점검 장비 임대 확대

- 점검장비 추가 확보 : 현재 25개 → **100개 확대** (정부 특별교부세 활용)
- 신청방법 다양화 : 유선신청 → **온라인 · 모바일 신청**으로 확대
 -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청코너 마련, ‘안심이’ 앱에 신청 기능 추가
-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**주요 민간업체·협회와 협업 강화**
 - 숙박업 예약서비스 운영업체와의 불법촬영장비 점검 협업사업 선별적 확대
 - 외식업 협회, 숙박업 협회, 체인스토어 협회, 영화관·백화점 등과 업무협약 추진

□ 추진일정

- 점검장비 추가 확보 및 민간업체(단체)와 협약 추진 : ‘18. 9월~
- 자체점검 민간업체에 대한 점검확인 제도 마련·운영 : ‘18. 하반기

□ 불법촬영 STOP! 인식개선 캠페인

-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 전개
 - 시청광장 개최('18.9~10월), 캠페인 붙임 유도
 - 시장·시교육감·시경찰청장이 불법촬영물 근절 선언 및 기관간 MOU 체결
- 동영상 콘테스트 우수작 활용, 시민 인식개선 유도
 - 온라인 공모('18.10월), 우수 영상물은 SNS 등 활용 공유·확산
-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,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감시활동 강화
 - 서울 WithU 프로젝트 연계, 신고된 영상물 삭제 조치 및 추적 관리

□ 불법촬영 관련 경고 메시지 전파 및 서울시 근절노력 홍보

-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(경찰청 협조)

- 처벌수준, 신고방법, 전화번호 등
- ▶ 현재 130개 지하철역사 게시 중



-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노력 홍보

- 여성안심보안관, 화장실 환경개선 등
- ▶ 홍보물 심의 완료, 9월중 게시 예정



□ 화장실내 불법촬영 의심사항 제거활동 강화

- 화장실내 흡집, 나사구멍, 훼손설비 등 불안감 유발 흔적 복구
 - 여성안심보안관, 자치구 점검인력, 건물 관리인 등이 직접 보수
 - 점검날짜,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여 화장실 실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
 - 화장실입구 CCTV, 인터폰 등 설치 확대
- 불법촬영장비 자가점검 가능한 감지기 구매지원 또는 비치 검토('18년 시범운영)
 - 휴대가 간편한 저가형 감지기 일괄 구매, 이용자 대여
 - 감지기를 건물 관리인에게 맡겨 필요시 이용자 직접 점검 시 활용
- 누구나 쉽게 불법촬영장비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(장기)
 - 불법촬영장비 감지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신규 개발 요청(삼성, LG 등)

공중화장실(공공·민간개방) 세부현황 전수조사 협조 ('18. 8월)

- 관할 공공·민간개방 화장실 **현황 및 관리상황** 조사·제출
 - 위치, 면적, 관리기관, 청소 주기, 미화원 근무 형태, 시설물 상태 등
 - 여성안심보안관 **특별 관리대상 화장실 후보** 선정·제출
 - 다수 이용 화장실, 민원발생 화장실, 시설노후 화장실, 유흥가 주변 화장실 등
- ※ 제출양식, 조사항목, 특별 관리대상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계획 수립 후 별도 공문시행 예정

✓ 여성가족정책실의 점검활동 강화 이외에 시민건강국(생활보건과)에서 안심 화장실 조성을 위한 **남녀화장실 분리** 등의 **환경개선 계획**을 수립 중으로, 추후 이와 관련한 **민간화장실 현황조사**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

관할 공중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책임점검 시행

- 관할 청사, 관리시설 내 **공공화장실별 관리부서 지정·점검**(‘18. 8월)
 - 점검표 마련·비치(붙임 참조), 1일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, 분기별 관리결과 제출
- **민간개방 화장실 불법촬영장비** 점검을 위한 **점검단 구성·점검**(‘18. 9월)
 - 사회적일자리(어르신일자리, 공공근로 등) 또는 자원봉사단 활용
 - 지역 내 민간개방 화장실 목록 마련, 주 2회 이상 점검, 분기별 관리결과 제출

서울시 점검 확인제도 운영 협조 및 민간화장실 참여 독려

- 민간의 자체점검 확인을 위한 **현장실사 및 표식관리** 협조(‘18. 하반기)
 - 신청 화장실의 기준 부합여부 현장조사에 관할 공무원 및 안심보안관 참여
 - 기준 부합 화장실에 대한 표식 부착 및 점검일자 기록 주기적 관리
- 지역 내 **자체점검 참여 의사 있는 민간화장실 발굴** 협조
 - 사업주/전물주 등에 기기 임대 신청절차, 참여 시 인센티브 등 안내

※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자치구 협조사항은 계획 수립 완료 후 공지 예정

화장실 유지관리 점검표

점검일 : 2018년 월 일

양호○ 보통△ 불량×

점검항목	시설명	시설상태	오전	오후	불량 내용
청소 상태	바 닥	청결상태 및 물기여부			
	대변기실	청결상태 및 물기여부			
	벽	먼지, 낙서, 타일 파손여부			
	천 정	먼지, 거미줄, 타일 등의 상태			
시설 상태	세면기	고장 파손 및 청결상태			
	대·소변기	작동상태 및 쾌적성여부			
	환풍기	파손유무 및 청결상태			
	거울	파손유무 및 청결상태			
	조명기구	작동여부 및 청결상태			
소모품	휴지	충분한 휴지의 비치여부			
	비누·물비누	비누 및 물비누의 비치여부			
기타	에어타올·수건· 페이퍼타올	비치여부 및 관리상태			
	청소도구	청소도구의 정리정돈상태			
	휴지통	휴지통 주변의 청결 관리상태			

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

점검 여부(O / X)	
점검 방법(육안, 적외선 탐지기, 전자파 탐지기 등)	
의심사항 조치내역(흡집제거, 파손복구 등)	

관리책임자 : (서명)

기관명